

사랑하는 임용우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지난 주말의 캄봉츠낭 단기선교의 소식을 감사로 전해드립니다. 기쁘게 맘껏려 수고하였고,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우고 채워주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캄봉츠낭 선교여행

#### Kampong Chhnang Mission

Go | Share | Awaken

‘가서, 전하고, 깨우는’ Go, Share, Awaken 은 저희가 캄보디아 국내선교에 표방하는 모토 Motto입니다. 지난 1월 캄봉짬 선교와 달리 이번 캄봉츠낭 선교는 그 지역의 한 현지교회를 거점 삼아 또다른 3개의 시골 교회를 연계하며, 총 4 교회를 섬기고 지원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정지웅 선교사 포함 총 9명이었고, 남자 팀원들은 금요일에 교회서 락인 lock-in 을 하였고, 모두 토요일 일찍 모여 선교지로 출발하였습니다.



캄봉츠낭은 캄보디아에서 몇 군데 안되는 흙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츠낭이란 말이 도기 clay pot 이란 뜻으로, 캄보디아 전역에 도기를 구워 파는 지역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토기장이’가 많이 사는 동네인 것입니다.

공식 선교일정은 토요일과 주일의 종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지에서의 현지인을 통한 선교는 외국에서 외국인인 통한 선교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에서 캄봉츠낭으로 온다면 이동시간만 이틀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3시간이면 들어갑니다. 최소 경비도 한사람이 2500 불 이상이 필요합니다. 반면 현지에선 30 불이면 숙식과 간단한 사역비가 됩니다. 대략 100 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그 비율이 반대가 됩니다. 같은 말을 쓰며, 살아온 대로 먹고 자며, 익숙하고 편한 놀이와 시간을 보내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외국인 선교팀은 ‘가는 것이, 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되지만, 현지인들간에는 ‘서로 다름’이 없으니 처음부터 사역의 열매들을 만들어 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

깜뽕츠낭에 도착하여 먼저 이번 단기선교의 거점으로 삼은 츠낭교회로 갔습니다. 그곳에 짐을 풀고, 첫 사역지인 또다른 시골 교회로 갔습니다. 토요일이라 예배 대신 마을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집들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을 모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가져온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갔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때 만들었던 한 페이지 복음 전단지(leaflet)를 이번에도 사용했습니다. 단 노방전도에 적합한 크기의 전단지(leaflet)로 바꾸었고, 또 교회 이름과 연락처를 제자교회의 것을 빼고 깜뽕츠낭 지역 교회의 것으로 하였습니다. 뿌려진 복음은 지역교회가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방문한 가정마다 가족사진을 찍었으며, 현상하여 선물로 지역교회를 통해 다시 각 가정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진에도 지역교회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전하는 이를 따라 그 교회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츠낭 교회로 돌아와 중고등학생들을 모아 저희 팀원들이 꿈과 비전을 나누고 각자 무슨 공부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단기선교에서 방문했던 4 교회에는 대학생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더러 프놈펜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저희 팀원들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팀원들 간증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 장례식을 치루고 온 자매, 직장을 구하며 선교 직전 인터넷으로 한 회사에 인터뷰를 하고 온 형제, 전날 새벽 2시까지 일하고 교회로 와서 자고 함께 출발했던 형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선교회비(10 불)는 못 냈지만 자기가 가진 몇 벌의 옷을 깨끗히 빨아서 선물로 가져온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단기선교를 어떻게 왔는지,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각 사람의 영혼을 어떠한 은혜로 갚아 주셨는지를 나누 때, 팀원 한 영혼 한 영혼이 참으로 귀하고 고맙게 여겨졌는지요.



저희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또 깜봉츠낭의 교회와 현지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첫 날 사역을 마쳤습니다.

주일 아침 6 시반에 일어나 큐티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8 시 30 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깜봉츠낭 교회의 반 목사님 <sup>Pastor Vann</sup> 은 참으로 겸손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중에는 프놈펜에서 고등학교 지리선생님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매주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섬기며, 항상 그자리에 그 모습으로 성도를 맞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2015년 저희가 첫 선교를 시작할 때, 저희에게 이 지역에 지역교회를 세우길 원하는지 물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교제하며, 사실 많은 외국 선교사가 와서 재정을 지원하며 자신의 사역지로 교회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로서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선교사들로 인한 상처가 신실한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어렵게 하는 것에 가슴아팠습니다.

기도가운데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 '너희가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줄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며, 나아가 일꾼의 바구니를 채우신다는 것을 나누며, 우리들의 삶이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가진 예수님은 한 없이 부요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니, 그분의 사랑을 나누길 더욱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예배 후 점심 전에 그 지역이 고향인 제자교회 형제의 집을 가정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 인사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매년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무슨 마음이 들까.. 아직 아버님(사진 속 노란 옷)은 잘 웃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고마움이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남은 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참으로 외지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곳에 사람이 살까 싶은 길을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착한 곳에 아이들이 나무 밑에 모여 성경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개와 소가 누워 쉬고 있습니다. 깜봉츠낭 교회의 한 여자 집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아이들을 모아 예배를 시작한 곳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열 여섯 살 자매입니다.

선교사 눈에 비춰진 이 교회는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으며, 조금 큰 아이가, 더 작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히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국 벌티모어 <sup>Baltimore</sup>의 수족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5000미터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 사는 심해어로 새끼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통에 하나님이 칠해 놓으신 색깔이 빨강과 파란 아주 아름다운 물고기였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아니 빛이 들어오지 않아 보이지도 않는 이 깊은 바다에 왜 이런 물고기는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과 아름다움은 어느 한곳 미치지 않은 곳이 없구나’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무 밑의 아이들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사람의 관심은 못 받을 지 몰라도 하나님앞에 진정 아름다운 이들이었습니다. 저희 팀원은 함께 찬양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림 그리고, 게임하며, 어려움 없이 마음껏 사랑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마지막 4번째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하니 그곳에도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를 자세히 보니, 아침에 츄냥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고등학생 두 자매였습니다. 참 대견하고 고맷습니다. 자기들도



여느 10대 아이들처럼 예쁘고 싶을텐데..

예배는 한 집의 처마 밑에서 드려졌습니다. 나무교회에 이은 처마 교회입니다. 저희 팀원들은 옆 집 울타리에서 구경하는 아이와 엄마들을 초청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울타리를 넘어 왔고, 어떤 아이들은 엄마에게 되려 안기며 울었습니다.



믿음이란 저 울타리를 넘는 것과 같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걸음 내 뚫으면 되는 것인데 하고 말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네 교회에 저희가 모아 온 옷, 장난감, 학용품 등을 나눴습니다.

어떤 곳에는 남고, 어떤 곳에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것을 내어 주어 채우시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도, 한 사람의 신앙인도, 어린이도, 어른도..



모든 사역을 마치고, 츠낭교회와 그곳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 저녁무렵 프놈펜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동안은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참 잘했구나. 남김이 없었으니..'

사랑하는 동역자님, 노래를 만들어 세계로 가져가는 K-POP 가수들이 가지는 경제가치가 있습니다. 가령 2000년대 초 초기 한류를 시작한 가수 보아(BoA)는 수천 억원, 이후 K-POP 확산의 획을 그었던 소녀시대는 1 조원대의 경제가치를 가진다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고 한 영혼을 찾아가는 이들은 얼마큼의 가치를 가질까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발'일 것입니다.

제자교회는 매년 초 국내선교, 그리고 여름에 해외선교를 갑니다. 이번 캄봉츠낭 선교로 올해의 국내선교를 마치고, 이제 7월말 해외선교를 준비합니다. 올 해는 작년 태국에 이어 V국 (베트남) 으로 가게됩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사랑이 이곳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깨우고,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와 대학 사역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나아가 또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캄보디아 청년들의 믿음이 어려운 삶 중에 아름답고 단단히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아름다운 손길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너희가 주라'

2017년 3월 7일

정지웅/은영, 온유, 주언 올림



~ Episode ~



거점으로 삼았던 초남교회의 부엌입니다. 빗물을 모아 저장하는 큰 물 항아리를 보며, 물은 저렇게라도 담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지 않으면 조금도 내 힘으로 담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시골 마을 전도에서 만난 한 여자아이입니다. 수줍은지 따라 다니는데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들어가 저희를 지켜 보았습니다. 그때 살짝 웃었습니다.

. - The End -